

서노송예술촌에 들어선 '뜻밖의 미술관'

전주시, 25일부터 올해 첫 기획전 개최... 주민들로부터 사진 기증·대여 받아 노송동 역사 그려낼 예정

성매매결절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한 서노송예술촌 한복판에 '뜻밖의 미술관'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미술관은 전시,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돼 향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서노송예술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매매결절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한 서노송예술촌 한복판에 '뜻밖의 미술관'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와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 사업단(대표 장근범)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작은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5일부터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에서 올해 첫 기획전을 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완산구 물왕리2길 3-6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은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건물을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지난해 12월 조성했다. 시는 올해 3월 명칭제정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업소였던 좁은 골목길에 미술관이 들어서선 적어 '뜻밖의 미술관'으로 이 건물 이름을 정했다.

이 '뜻밖의 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전으로는 노송도팔연폭(老松圖八連幅) 전(展)이 열린다. 이 기획전에서는 미술관이 위치한 서노송동을 주제로 마을 주민들이 보유한 오래된 사진들을 기증 또는 대여 받아 8개의 색선으로 나눠 노송동의 전체적인 역사를 그려낸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대화, 예술서점 '물결서사' 연계 시민 프로그램 등도 준비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전시물을 설명하는 도슨트 활동도 이어진다.

18일 프리 오픈을 시작으로 25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이번 기획전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진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시는 예술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기획단과 함께 다양한 실험 정신이 담긴 전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 기획전으로는 마을 주민이 지속적으로 재배·관대한 텃밭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미술관에 피는 꽃' 전시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뜻밖의 미술관'이 문을 연 지난해 12월에는 인권을 주제로 한 '오감연대' 전시회를 개최했다. 오감연대 전시회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죽음의 두려움 변화되고 있는 땅의 모습까지 다양한 주제의 예술작품이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뜻밖의 미술관은 노송동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주민공동체와 문화예술가들의 협력으로 모두가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뜻밖의 미술관은 노송동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주민공동체와 문화예술가들의 협력으로 모두가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웰컴센터 밑그림 그려

전주시, 건립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어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 최종 당선작 선정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릴 '글로벌 웰컴센터'의 한옥 형태 밑그림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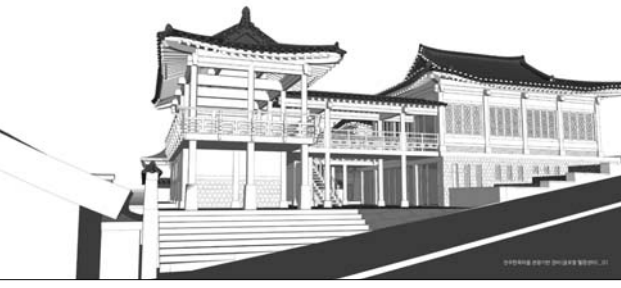
한옥마을을 오목대 인근에 들어서 있는 '글로벌 웰컴센터'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설계공모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구축해야 효율적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한옥마을 정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자 진행됐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배치계획의 적합성

과 기린대로 및 태조로의 접근성, 공간활용 및 동선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선작과 계약찰자 이행 후 다음 달 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연내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웰컴센터는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582㎡, 연면적 약 480㎡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 공간과 관광객 휴게 공간, 야외 전망대(누마루) 등이 조성되며, 지하 1층에는 스마트관광체험 공간과 전시·홍보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곳에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배치돼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일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 청소년 업무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8일 전주시청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야기치료 활용 상담기법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지역 내 청소년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각급 학교 등 아동·청소년 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 상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은순 문화치료연구소장은 이야기치료에 대한 개념과 정의, 방법 등 이론교육과 함께 머드 테라피 등 상담 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도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조현재 임마뉴엘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실장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 내면의 욕구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특히 참휴어라는 매체를 통해 관계 속의 역동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연수를 통해 유용한 상담기법을 습득하고 실무자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유기동물·길고양이 동물 복지 정책 방향 논의

동물복지 다올마당 회의 개최

전주시가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등 동물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청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올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올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유기동물 보호소 수의사와 동물보호 활동가, 유기견재활센터 관계자 등 13명으로 꾸려진 동물복지 다올마당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동물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주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청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올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올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과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시는 동물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유기동물 재활센터·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중성화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유기동물 치료비·미용비 지원 ▲펫티켓 및 입양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자문위원 4명 위촉

전주시는 지난 17일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이끌어갈 전문가 4명을 '전주시 통합돌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주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던 통합돌봄 컨설팅단이 지난 4월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자문을 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통합돌봄 자문위원을 새롭게 선정할 것이다. 분야별 통합돌봄 자문위원으로는 ▲보건·의료 분야,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원 ▲민간지원단·생활방역 분야, 서인영 금안노인복지관장 ▲전달체계 개편·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분야,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함께한다.

위촉식에 이어 이날 제1차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회의가 열렸다. 자문위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 사



업의 성공적인 독자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자문을 하게 된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자문위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자문회의 ▲건강·의료안전망 연석회의 ▲융합형 행정협의회 ▲통합돌봄 업무공유 간담회 ▲민간지원단 업무협의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